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12월 2일(주일) 제1223호



사진은 지난해 '사랑앓나눔' 행사

이웃에게 사랑 전하고, 나눔의 기쁨 배운다!

8일부터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행사 개최 서울 13개 지역 910가구에 쌀과 생필품 전달

8일(토)부터 '2018 사랑앓나눔 행사'가 시작된다. 사랑앓나눔 행사는 대학청년부 청년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쌀, 반찬,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뜻 깊은 행사이다. 8일과 15일에 실시된다.

갈렙, 길, 여호수아, 요셉, 하늘, CH PLUS, J4U, SNS, Pole2, W는 8일, 허브는 15일에 사랑앓나눔 행사를 실시한다.

올해 사랑앓나눔 행사에는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소속 청년 850명이 참가한다. 서울 13개 지역 쪽방촌, 복지관, 주민센터 등 910가구를 찾아가 쌀, 요셉공동체 중랑구 복지관, 여호수아공동체 사직동, 교남동 주민센터, W공동체 재한몽골학교, SNS공동체 산마루교회, 수서 명화복지관, J4U 공동체 도봉구 노인복지관, 길공동체 종로구 노인복지관, 갈렙공동체

동대문구 주민센터, 허브공동체 관악구 중앙사회복지관, Pole2공동체 서울역 쪽방촌, 하늘공동체 관악구 노인복지관, CH PLUS공동체 은평구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대학청년부 청년들은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지역청소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행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오리엔테이션 및 행사 준비, 인원 분류와 대상가족 안내, 나눔과 선김, 사역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 본부장)는 "사랑앓나눔 행사가 청년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

고, 나눔의 기쁨을 배우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권한송 기자 kcs123@onnuri.org

남양주 담당목사 이·취임예배

이해영 목사 취임, 안광국 목사 이임



이해영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안광국 목사가 이임하고 이해영 목사가 담당목사로 취임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2시 남양주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남양주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리더십들과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 서대문공동체 성도들이 참석했다. 임현태 장로의 대표기도, 주찬양 찬양사역팀의 특송, 허원희 목사의 성경봉독, 이재훈 담임목사의 말씀, 이임사와 취임사, 안수기도, 이해영 목사의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선교적 교회' (행 11:19-26)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안디옥교회처럼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아름답게 협력하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해영 목사는 취임사에서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온누리 절약 캠페인 3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우리 모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온누리교회가 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일회용품은 환경파괴의 주범이다. 온누리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중에서 무려 절반가량이 일회용품이라고 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 일회용 접시보다는 집에서 가져온 그릇을 사용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교회 카페에서도 텀블러를 이용하면 더욱 좋다. 사역팀 모임이나 순모임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줄여보자.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시작된다

12월 10일~1월 19일 오전 5시 20분 각 캠퍼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다음 주 월요일(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 40일 동안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오전 5시 20분에 진행된다. 주제는 '성령의 바람 불게소서'이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해외 비전교회에서는 시차에 따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동참한다. CGNTV

는 40일 동안 새벽기도회 실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요일별, 주제별 중보기도를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 화요일 차세대, 수요일 선교, 목요일 교회, 금요일 가정, 토요일 통일을 주제로 중보기도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당 회

일시: 12월 8일(토) 오전 6시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시무, 사역, 명예, 협동장로

제직회

12월 9일 2부 예배 후
대상: 모든 제직
안건: 2019년 예산안

공동의회

12월 9일 3부 예배 후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장소: 서빙고 본당
안건: 온누리교회 정관개정안 상정
2019년 예산안

축하해주세요

안산M센터가 키운 아이들의 꿈이 영글다

고려인 4세 아나스타샤와 선교사 자녀 요타 대학 입학

이주민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자기 힘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일은 결코 녹록치 않다. 그 힘든 일을 해낸 이주민 청소년이 있다. 주인공은 아나스타샤(우즈베키스탄)와 요타(태국)다. 그들 때문에 지금 안산M센터는 축제분위기가.

고려인 4세 아나스타샤와 선교사 자녀 요타가 한국의 명문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다. 그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신앙과 꿈을 키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안산M센터와 스타트리 프로그램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안산M센터에서 한국말뿐만 아니라 신앙, 꿈도 함께 자란 아나스타샤(좌)와 요타(우).

“아나스타샤는 예술적 감각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임감도 강합니다. 재능, 인성, 지성을 두루 겸비한 인재입니다. 요타는 선교사 자녀로서 부모님을 도와 태국어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귀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노규석 목사(안산M센터)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노 목사뿐만이 아니다. 안산M센터를 섬기고 있는 스테프, 봉사자, 외국인 성도 할 것 없이 아나스타샤(우즈베키스탄)와 요타(태국)를 칭찬했다. 아나스타샤와 요타는 안산M센터가 키운 아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말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입에 안 맞았지만 안산M센터와 스타트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와 신앙, 꿈을 키울 수 있었다.

아나스타샤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4세다. 2012년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일을 많이 해도 월급이 적어서 생활하는 게 무척 힘들었어요. 옷을 사야 할지, 햄(식량)을 사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서 돈 벌러 한국에 가셨어요.”

부모가 돈 벌러 한국에 가있는 4년 동안 아나스타샤와 동생은 외할머니와 지냈다. 외할머니가 살뜰히 보살펴줬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고작 초등학교 4학년(11살)짜

리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나스타샤는 그 외로움을 공부와 신앙으로 달랬다.

“외로울 때면 열심히 공부했어요. 가끔 울기도 했고요. 부모님이 한국에 가시고 나서 외할머니 집 바로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찬양도 하고, 할머니랑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세례도 받았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픈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는 4년 만에 온가족이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아나스타샤는 우즈베키스탄에서 7학년(우리나라 중1)을 마치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으로 입학할 줄 알았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입학을 고사했다. 아나스타샤가 한국말을 못했기 때문이다.

“제가 한국말을 할 줄 모르니까 한국말부터 배우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할 수도 있고, 학업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 수 있다면서요. 어쩔 수 없이 동생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 초등학교에는 러시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한국말을 공부했어요.”

러시아 친구들이 아나스타샤에게 안산M센터를 소개해줬다.

“안산M센터에는 교회도 있고, 공부도 무료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안산M센터에서 공부를 무료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은 ‘스타트리’다. 이주민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다.

“스타트리에서 한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스타트리에서 공부하면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아나스타샤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공부를 잘했지만 한국으로 오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다고 학원을 다니기에는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다. 그런데 스타트리 덕분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혼자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향상됐다. 얼마 전 아나스타샤에게 축하할 일이 생겼다. 우리나라의 명문사립대학교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 당당하게 합격한 것. 학비가 비싸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나스타샤는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어 너무 설레고 기쁘다고 했다.

“제 꿈은 국제 NGO단체에서 일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문화센터와 고려인센터에서 러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는 봉사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에 절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전기자동차 엔지니어 꿈꾸는 ‘요타’

요타는 만화 주인공처럼 잘 생겼다. 호리호리한 키, 시원시원한 이목구비가 만찐남(만화를 찢고 나온 듯한 남자)을 연상하게 한다. 쑥스러움이 많은 성격인데 전기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꿈을 이야기할 때는 확신이 넘쳤다. 요타는 MK(선교사 자녀)다. 요타의 아버지는 안산M센터 태국어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마눔 목사이다. 요타는 태국에서 한국 선교사로 파송 받은 부모와 함께 2010년 4월 한국에 왔다.

태국은 잘 알다시피 불교국가이다. 국민의 약 95%가 불교이고, 5%가 이슬람, 기독교(천주교 포함)는 1%도 채 안 된다. 요타네 가족은 영적으로 척박한 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만큼 참으로 귀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요타도 처음 한국 학교에 입학했을 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국어를 못하면 수업 듣는 게 힘들다며 다 른 곳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랑 안산에 있는 외국인주

민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인 친구가 안산M센터 스타트리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스타트리가 학원인줄 알았어요. 친구가 저보고 교회 다니냐고 묻기에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산에 있는 M센터에는 외국인을 위한 교회가 있고 공부도 무료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아빠한테 안산M센터와 스타트리에 대해 말 쑤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 다음날 저를 따라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곳에 다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셨나 봐요.”

마눔 목사는 안산M센터가 이상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이 일이 계기가 돼 마눔 목사는 2013년 사역지를 안산M센터로 옮겨 태국어예배를 개척했다. 요타는 안산M센터를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스타트리에서 선생님들이 한국말도 알려주고, 수학과 영어 공부도 시켜줬다.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해먹었다.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축구도 했다. 가끔 선생님들이 간식을 사주시는 것도 너무 즐거웠다.

“학교에는 안 믿는 친구들도 많고, 말이 잘 안 통해서 친구 사귀는 게 어려웠는데 안산M센터는 달랐어요.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많고,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정말 잘 가르쳐줬거든요. 그 덕분에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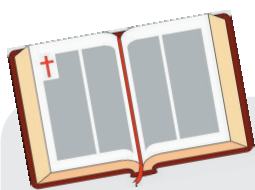
요타는 이번 대학입학 수시전형에서 아주자 동차대(국내 유일 자동차특성화 대학)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과에 합격했다.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했어요. 태국에 있을 때 아빠는 외출하실 때마다 저를 자동차에 태워서 같이 다니셨어요. 자동차에 대해 알려주시기도 했고요. 아빠랑 차타고 이곳저곳 다니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전기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요타는 대학생활이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다고 했다.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도 설레고, 자신이 좋아하는 자동차를 마음껏 공부하게 된 것도 기쁘다고 했다.

“안산M센터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스타트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 잊지 않고 건강하고, 겸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후원 문의
계좌: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온누리교회온누리미션
문의: 031-491-9650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복음 증거를 위해 기도하라

에베소서 6:10~20

“기도할 때 사탄의 왕국이 무너집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복음 증거에
참여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헌신하고 기도하십시오.”

외딴 원주민 마을에서 혼자 사역하는 선교사 집 주변에 선교사님을 공격하려는 원주민 갱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원주민 중 한 사람이 선교사의 집을 습격하려고 밤늦은 시간 혼자 다가갔습니다. 선교사의 집에 가까이 갔는데 수많은 군인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그 원주민이 선교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 집을 습격하려고 늦은 밤에 찾아갔는데 당신이 배치해 놓은 군인들 때문에 되돌아 왔소.”

선교사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밤에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집을 지키도록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주민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선교사는 그 체험을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책임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몇 명이라고 말했더니 책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숫자가 그날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한 숫자만큼 선교사 집을 지키는 영적 천사가 되었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증거 되는 일에는 이러한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체험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 되는 일에 헌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이 체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 능력이 나타나면 참여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이고, 이기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 되는 일에 헌신하고, 참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역사와 신비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역 성공의 열쇠는 파송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흔히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를 평가하기 쉬운데 사실 선교사역의 성공 여부는 중보기도에 달려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역

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언제나 기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선교사역에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의 힘보다 재정적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재정은 선교 현장에서 영적 공격을 받을 때 아무런 힘이 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때로 재정이 부족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역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 넘어 전진하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요청

영적전쟁의 승리를 위한 교범이 되었던 말씀의 마지막은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요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19-20절).

이 기도는 바울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슬에 매인 자신이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요청은 자신이 사슬에 매어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슬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간구하지 않고 갇힌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라는 단어를 19-20절에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말, 마땅히 전해야 할 말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형편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증거 되는 사역이 열매 맺는 것은 기도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갇힌 자가 되었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갇힌 상황에서도 기도를 요청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선택 받은 이유

영적 전쟁의 승패는 복음을 증거 하는 일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복음 증거 사역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 혹은 기도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복음 증거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요 17:20).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구원을 전달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선택된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신만 선택 받은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왜 다른 문화, 다른 종족, 다른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신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반발합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선택받아서 이루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 아닙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 되는 일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먼저 택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선택 받은 것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문화 수준이 높아서, 남들보다 선택해서, 분별력이 좋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이유로 우리가 먼저 믿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먼저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면에는 반드시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선택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만에 빠지든지 오해하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 사역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기적 신앙은 독이 있는 신앙입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 되는 일에 헌신하고, 기도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선교에 헌신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다툼과 분열, 전통과 형식 속에 있는 교회는 선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일도 없습니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도 게으릅니다. 선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택을 받은 이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력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기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훌륭한 선교사님의 통찰력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주변의 세상을 정복하려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활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세상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영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선교는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교회가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선교 현장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현장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그동안 이룰 수 있었던 복음 증거 사역은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에 30년 이상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을 섬기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지하기도실에서 릴레이로 중보기도하는 성도님들과 보이지 않는 기도의 헌신들이 온누리교회의 복음 증거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11면에 계속)

기획

아무리 그래도 혼자보다 둘이 낫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 비혼과 동거, 저출산 증가
‘가정은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가치관 세상에 알려야

또 ‘결혼과 출산’ 이야기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잠자코 있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결혼과 출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와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결혼율과 출산율이 좀처럼 오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어 큰 걱정이다. 크리스천들마저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될까 두렵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uri.org

해를 거듭할수록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증가하는데 동거, 비혼,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이 사상 최초로 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망자(2만6천명)가 출생자(2만5천명)를 앞질렀다. 사실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쏟아 부은 예산만해도 120조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율과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줄고
동거와 비혼 긍정적 인식 증가

“결혼을 왜 해요 혼자가 더 좋은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전국 만 13세 이상 3만9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필수’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절반도 되지 않았다.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1%에 그쳤다. 2010년 64.7%에서 8년 만에 16.6%나 줄어들었다. 단순히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응답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염려된다. 빅데이터 분석 회사 다음소프트가 SNS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더니 ‘거부하다’, ‘혐오’, ‘안타깝다’, ‘불행한’ 등 부정적 키워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올해 결혼에 대한 키워드 4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부정적인 단어였다. 4위 힘들다(19,593건), 5위 거부하다(13,568건), 6위 혐오(12,585건), 7위 안타깝다(11,044건), 8위 불행한(10,857건), 9위 소용없다(8,745건), 10위 답답하다(7,805건)였다. 1위 사랑(33,750건), 2위 좋은(27,670건), 3위 행복하다(25,893건)를 제외한 모든 키워드가 부정적이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키워드가 4개나 증가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증가하는데 동거와 비혼,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2010년 40.5%에서 2012년 45.9%, 2014년 46.6%, 2016년 4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대 74%는 동거와 비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소프트가 SNS에서 비혼에 대한



SNS상 결혼, 비혼에 대한 관련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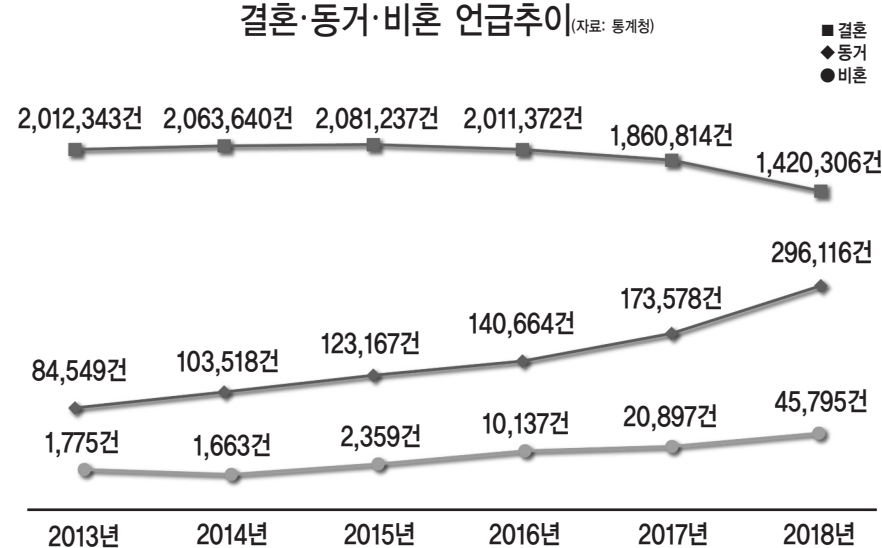
결혼

▶ 사랑, 좋은, 행복하다, 힘들다, 거부하다, 혐오, 안타깝다

비혼

▶ 좋다, 희망, 만족, 공감, 지지하다, 응원하다, 필요하다

결혼·동거·비혼 언급추이 (자료: 통계청)



반응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8%, 2017년 50%, 2018년 51%였다. 비혼에 대한 연관 키워드는 좋다(14,955건), 희망(13,362건), 만족(8,478건), 공감하다(3,984건), 지지하다(3,400건), 응원하다(2,417건), 필요하다(2,337건), 원하다(2,302건) 등으로 조사됐다.

비혼출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은 선택’이라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비혼출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비혼출산은 비혼이나 동거상태에서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미혼모 혹은 미혼부 가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SNS에서 비혼출산에 대한 언급은 2013년 280건, 2014년 384건, 2015년 2,679건, 2016년 7,726건, 2017년 10,419건, 2018년 19,510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36.7%, 30대 38.3%나 됐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책에는 ‘비혼출산 차별금지’도 포함되어 있다. 비혼출산 차별금지는 2015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8 경제정책방향’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동거부부가 자녀를 가질 때도 동일한 혜택을 줘서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이다. 당연히 비혼출산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비혼출산을 장려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1.9%다. OECD 평균 39.9%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의 비혼 출산 비율은 56.7%, 스웨덴은 54.6%나 된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비혼출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해야 할까? 머지않아 한국도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비혼출산이 급증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아무리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도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다고들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행복 수준 인식을 조사한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행복지수는 5.8점으로 2인 가구(6.3점), 3인 가구(6.4점), 4인 가구(6.5점)보다 낮았다. 그런데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뭐니 뭐니 해도 돈(Money)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논문 ‘적정 결혼 연령과 만혼·비혼 원인에 대한 태도’에서 미혼자들에게 늦게 결혼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가 84%로 가장 높았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가 82.4%,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가 77%로 그 뒤를 이었다. 결국 돈이 문제였다. 결혼을 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지도 모른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교회의 사명

그렇다면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과 출산 관련해서 꼭 완수해야 할 사명이나 역할이 분명 있을 것 같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개선,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부부 지원,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아동수당 지급, 공공어린이집 확대, 돌봄교실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회는 부부, 가족, 부모에 대한 고귀한 역할과 사명을 널리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결혼과 출산에 관심이 많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결혼하고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값진 것이 가정과 자녀, 신앙과 믿음의 전수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 이미 한국 교회에서 널리 실시되고 있는 가정사역, 예비부부교육, 차세대 교육, 부모교육 등을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 교회 담벼락을 넘어서 세상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한다.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을 마음에 품게 되는 그날까지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생각해 봅시다

기울어가는 배위에서 침묵할 것인가, 진리를 외칠 것인가



김정순 목사
(부천 온누리교회)

요즘 엄청난 괴리감으로 인해 회의감과 좌절감을 너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아마 어린 시절 아날로그 사회에서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절을 배우고, 자연 속에서 뛰어 놀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좌절감을 더 많이 느낄 것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 내리는 사회적 현상은 타나토스적인 흑구름 속에서 자살과 폭력과 존속 살인과 왕따와 음란과 극도의 이기적인 뉴스를 토해내고 있다. 어느덧 인간은 돈과 권력과 경쟁의 노예가 되어 타인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공식이 사회의 기저가 되어 있다. 직업에 대한 소명도 빛을 잃어간다. 교사라는 직책의 고유성과 고귀함은 쌍둥이 딸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 행한 범죄로 땅에 떨어져 버렸고, 일부 목회자는 성과 돈과 권력과 세습으로 교회의 신성함을 버리고,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정치인들은 평화를 가장한 독주를 하고 있다. 유치원을 보내는 엄마들은 분노하고,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들은 살얼음판을 거닐며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작전을 편다. 스스로 적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수에 맞춰 네모에 구겨 넣듯 소망 없이 들어간 대학을 꾸역꾸역 다닌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 젊은 자의 소망은 또 한 번 내동댕이쳐 버려진다.

“돌이키라, 내가 여호와인줄 알게 하리라”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살라는 말인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인간은 왜 변화가 없는가에서부터 차세대의 교육은 표류하고 있고, 도대체 주일마다 외치는 복음에는 왜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왜 우린 기계적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사정없이 내 마리를 때리며 아프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

나름 차세대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주님의 말씀에만 소망이 있다고 열변을 토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주 공허하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느낀다. 순간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되게 말씀하는 “돌이키라, 내가 여호와인줄 알게 하리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다. 우리의 우상숭배와 음란과 죄를 지적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애타고 애절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다가온다. 늦게야 철들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식처럼 아버지가 보이고 들린다. 이런 사회를 보면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

음에 공감이 된다.

생명이 없는 유교의 삼강오륜이 더 도덕적이고 질서가 있는 것은 왜일까? 성경은 가장 중요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으며, 구원을 얻었으면 예수의 제자답게 살라는 인성과 도덕성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주라, 우리를 가자하면 심리를 가주라는 이타적인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뽕뽕 뭉치고 있는가.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한 “현대 배교자 신앙의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 실감난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구원만 받은 장애인 그리스도인, 병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과연 영성과 인성은 분리된 개념인가 아니면 통합적인 개념인가?’라는 기본적 의문까지 들 정도이다. 타인이 보기에 영성 깊은 부모의 아이 사랑은 얼마나 자기중심적 아이 사랑인지 모른다. 모든 것이 자기 자녀에 초점이 맞춰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실히 자녀가 우상임을 자인하

의 죽음과 더불어 찾아올지라도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결국 자기중심적 사상인 인본주의는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고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첫째는 퇴보, 타락, 부패, 폭력을 위한 추구로 인한 파괴다. 둘째는 사회는 혼란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나 어떤 엘리트가 그 공백을 채우는데 그 엘리트가 자의적인 절대 기준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말릴 것인가? 사회는 침묵하는 다수와 소수로 구분되어 있고, 소수는 가치에 대한 참된 기반이 있는 기독교인이거나 적어도 가치가 참으로 존재했던 시대에 대한 기억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다수에게 남아 있는 것은 개인적 평안과 풍요라는 두 가지 빈곤한 가치뿐이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다수의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가 유일한 가치이므로 모든 정치인들도 법을 그 기준에 맞춰 제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인 진리는 점점 주그러진다.

성경에서도 인간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풍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이 아니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산들과 장애물이 많이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성 소외와 컴퓨터와 SNS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인간으로,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아주 알팍한 인간으로, 분노조절장애 인간으로, 음란물과 폭력의 홍수로 인한 타락으로 몰려가고 있다. 감정까지 입힌 로봇, 챗봇과 사랑함으로 혼자의 삶을 즐기는 세대가 자라나고 있다. 비혼, 솔로가미(자기 자신과 결혼하는 것), 심지어는 자궁은 내 것이므로 편하게 살려고 자궁적출수술까지 하는 사회가 되었다.

자녀 출산은 돈이 많이 들고, 자신의 경력 이 단절되고, 귀찮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을 피하는 시대가 되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여 기울어져가고 있음에도 갑판의 바이올리스트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나”를 연주했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연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연주를 해야 한다. 자녀는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외치며 연주해야 한다. 먼저 믿는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 해본조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힘써 알리고 할 때 생기는 것이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한국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일침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성도들 안에서 성경 읽는 습관 실종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했다. 성경을 읽고 통독해야 하나님의 세계관이 튼튼하게 세워진다. 우리에게 세상의 뉴스와 지식만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어 자기중심 사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매일 성경을 읽고, 통독과 큐티와 기도를 하면 우리의 생각의 기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으로 변할 것이다. 자기중심사상인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사상인 신본주의로 변해야 한다. 그래야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가정과 사회의 질서가 잡히고, 아름답고 사랑이 풍성하며, 정의 있는 세상이 된다. 결국 통독, 큐티, 기도가 인생의 솔루션이며 해답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과 시편 1편에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생각의 기저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변해야 한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정의 있는 세상이 된다.

는 것을 현장에서 바로 본다. 그렇다. 우리 생각의 기저가 이미 자기중심적 사상으로 눈에 보이는 돈과 화려함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미 사회전체가 기울어져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사회는 자녀교육을 믿음보다 돈과 학원과 점수로 연결하도록 기울어져 있다. 교회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묵인하며 ‘그래도 믿음이 최고’라고 말한다. 어느 땐 허풍에다 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회는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더 빠른 광속의 5G시대로 달려감으로 가속이 붙었다. 아프리카의 스프링 벅 산양처럼 뒤에서 오는 산양 떼에 밀려 과속하며 질주하고 있다. 결국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산양 떼처럼 절벽으로 치달아 가는 건지도 모른다.

프란시스 슈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 인본주의는 파괴적 욕망이 내제되어 있다. 인본주의적 파괴적 욕망은 우리의 자유와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까지 쳐서 허물어뜨리려는 강렬한 욕구이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지식을 파멸시키기 결정하였다. 그들은 가치의 죽음이 지식

의 신을 섬겼듯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다수가 반응하고, 소수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관심을 갖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휴가 때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갔었다 해도 그 나라를 속속들이 보고 왔다고는 말할 수 없다. 북유럽의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다. 3시에 퇴근하고도 GDP가 5~10만 달러나 된다. 국민 모두가 의료비와 대학등록금이 무료이니 얼마나 좋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과 평등과 행복과 풍요가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는 구태여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듯 보였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와 영성의 관계는 반비례인가?

자기중심 사상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중심 사상 신본주의로!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과연 ‘해본조선’은 될 수 있을까? 에스겔 37장은 이미 이스라엘 족속이 마른 뼈가 된 환상을 보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덮으시어 힘줄과 살갗이 입혀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을 기록하고

“관심으로 밥 짓고, 사랑으로 찌개 끓인다”

부천 청개구리밥차팀, 청소년 심야식당 ‘청개구리’ 봉사

또 한 사람을 위한 밥상이 차려졌다. 관심으로 밥을 짓고, 사랑으로 찌개를 끓인 생명의 밥상이다. 이 밥상을 차린 주인공은 부천 온누리교회 청개구리밥차팀이다. 그들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인근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심야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다. 거리에서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청개구리 식당을 찾아와 허기진 배를 채우고 고픈 사랑도 얻어간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똑딱 비운 청소년들의 얼굴에는 천국의 미소가 가득하다. 허기진 배를 채워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예수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청개구리밥차팀.

가출청소년 3명이 지난달 2일부터 6일까지 경남 등지에서 10여 차례나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다. 범죄를 저질렀으니 당연히 처벌을 받고 지탄을 받아야겠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보호와 관심이다.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가정에서 적절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2012)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학생은 부모의 학대를 경험할 수록, 여학생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따로 살게 될 경우 비행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만약 가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 나서서 가정이 못해준 역할을 채워줘야 한다. 교회

말고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교회만큼 편견 없이 누군가를 섬기고 보살피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부터가 곱지 않다. 사랑과 관심이 고픈 청소년들을 ‘불량(비행) 청소년’ 혹은 ‘문제아’라고 낙인을 찍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청소년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로 남는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낙인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아낌없이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하다.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

여기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다.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고 있는 부천 온누리교회 청개구리밥차팀이다. 하루 종일 굶고, 떨고, 거리를 헤매던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선물일까? 모르긴 몰라도 그 밥 한 그릇이 얼어붙어 있던 마음을 녹일 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어쩌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부천 온누리교회 청개구리밥차팀이 이 귀한 봉사를 시작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부천 온누리교회가 청개구리밥차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부천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공동체(이하 선한목자공동체)와의 만남 때문이다. 청개구리밥차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밥 한 끼 제공하는 밥차를 운영했다. 그러다 3년 전부터 건물을 얻어서 청소년을 위한 심야식당 청개구리를 열었다. 식당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부천 선한목자공동체 혼자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졌다. 다른 지역 교회들과 협력을 시도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 그 힘들던 시절 부천 온누리교회가 손을 잡아줬다. 그렇게 지난 6월부터 부천 온누리교회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심야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 온누리교회 청개구리밥차팀은 매주 월요일 청소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어른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거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만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거친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가까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청소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천 온누리교회 청개구리밥차 팀원들도 같은 생각이다. 그들은 아무리 거친 행동을 하는 청소년이라 해도 외면하지 않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부천 온누리교회 청개구리밥차팀 소속 성도 12명은 매주 월요일 2~3명씩 조를 지어서 이 사역을 섬기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임은미 집사, 김수경 성도, 김지윤 성도가 봉사자로 참여했다.

5시부터 시작되는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임은미 집사, 김수경 성도, 김지윤 성도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직접 마트에 가서 식재료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고 싱싱한 재료들로 엄선했다. 재료 준비와 손질, 조리까지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과정이 단 하나도 없었다. 내 아이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반찬 하나 만드는 것도 대충 하는 법이 없었다. 반찬 가짓수도 푸짐하고 양도 넉넉했다. 2~3일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 메뉴는 동태전, 닭볶음탕, 미역국, 김치, 콘샐러드, 콩자반, 각종 나물이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한 잔치상이 따로 없었다. 영양은 물론이고 맛도 최고였다. 그 귀한 음식을

대접받는 청소년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건 어쩌면 당연했다. 음식 한 입 먹을 때마다 탄성이 터져 나왔다. 심야식당 청개구리 사감 유기훈 형제는 한시도 쉬지 않고 부천 온누리교회 청개구리밥차팀을 칭찬했다.

“청개구리밥차팀이 준비한 음식은 정말 최고입니다. 상처 많은 청소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고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차린 음식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힐링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구슬땀 흘리며 열심히 식사를 준비한 임은미 집사는 맛있게 식사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청소년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청소년들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부천 청개구리밥차팀이 청소년들에게 밥만 주는 것이 아니다. 상처 많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들어준다. 지적장애인 노열정(가명, 24세) 형제는 오랜 세월 동안 집에 방치됐었다. 마음을 굳게 닫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좀처럼 다가가지 않았다. 그 청년이 청개구리밥차 팀원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 놓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들을 두서없이 늘어놓는데도 청개구리밥차 팀원들은 말 한마디 놓치지 않고 열심히 경청하고 공감해줬다.

김마음 학생(가명, 19세)도 매주 월요일 청소년 심야식당 청개구리에 찾아와 친구와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무거운 고민까지 스스럼없이 털어놓는다. 누가 봐도 정말 친한 모녀가 틀림없다.

청개구리밥차팀원들이 이 사역을 섬기게 된 사연이 있다. 김수경 성도는 청소년 상담사로 일한 적이 있다. 평소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지를 늘 기도하고 있었다.

“올해 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마침 청개구리밥차사역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적은 일손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서 헌신했습니다.”

김지윤 성도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다. 그녀는 방황하는 아들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청개구리밥차사역에 헌신했다.

“내 아이만 잘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사회가 더 밝아지고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의: 010-8200-7623

전문가 기고

명화로 보는 성경

마침내는 “아멘”으로 순종하다

안젤리코의 수태고지(受胎告知)에 담긴 마리아의 순종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일. 하. 세.
아카데미 강사)

아마도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상상한 번씩은 해봤을 것이다.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시간,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낯선 얼굴에 어깨에는 날개가 달린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건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소년 다니엘의 꿈결처럼 어딘가에서 어떤 나지막하고 거룩한 음성이 들린다면 어떨까?

누가복음 1장 26~38절을 살펴보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순진무구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른바 ‘수태고지(受胎告知)’ 혹은 ‘성모영보(聖母領報)’라고 불리는 빅이벤트다. 천사가 말했다. “마리아여!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기뻐하라(ave)”고 말한 데서 바로 ‘아베 마리아(Ave Maria)’라는 말이 나왔다. 마리아는 무척 당황했고 깜짝 놀랐다.

‘이 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천사가 마리아를 다독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이러했다.

“보아라. 네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납득할 수 없었다.

“처녀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다시 부연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지 않느냐.”

드디어 마리아가 대답했다.

“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이 말을 듣고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안젤리코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탄생 즉,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강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고하는 이 장면은 수많은 화가를 매료시킨 주제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산드로 보티첼리, 엘 그레코, 니콜라 푸생, 로렌초 로토, 얀 반 에이크, 존 윌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 (1435년 경,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리엄 워터하우스,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등 시대마다 최고의 화가들이 수태고지를 주제로 각각 개성이 뚜렷한 작품들을 남겼다. 그 중에서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을 말씀과 함께 큐티를 해보려고 한다. 프라 안젤리코가 1435년경에 그린 작품으로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그림을 보면 가로로 딱 3등분이 된 구도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왼쪽 3분의 1과 오른쪽 3분의 2는 완전히 다른 시공간이다. 왼쪽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 먹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되는 장면이다. 두 사람의 발 아래 선악과가 뒹굴고 있다. 성경에 형상이 묘사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왜 선악과를 사과 모양이라고 속단하는 걸까? 라틴어로 사과와 악(惡)은 같은 단어인 ‘말룸(malum)’을 사용한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과일을 아담에게 권하는 죄악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화가들이 악을 상징하는 사과를 선악과의 형상으로 채택하면서 이런 고정관념이 생겼다고 한다.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고 있는 천사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임을 고지하는 천사는 동일하게 가브리엘 천사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죄를 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왼쪽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 오른쪽에서 펼쳐지고 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를 ‘제2의 하와’인 마리아를 통해서 회복시키려 하신다. 그러므로 수태고지는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지를 암시한다.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

어 세상에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 하심으로 인류는 온전히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안젤리코는 그림을 통해 수태고지가 ‘성부-성자-성령’ 삼위일체의 완성을 상징한다는 것도 표현하고 있다. 왼쪽 위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져 내려와 마리아에게로 향한다. 마리아를 향해 쏟아지는 빛의 시작점에 성부(聖父)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보인다. 이 거룩한 빛은 성령(聖靈)이 되어 비둘기의 모습으로 마리아를 향한다. 비둘기는 평화와 성령을 상징한다. 대홍수가 닳을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날려 보낸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노아는 대홍수가 끝났음을 알게 된다(창 8:8-12). 이때 비둘기는 지상에 다시 평화가 도래했음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눅 3:22).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오른쪽 기둥 바로 왼쪽 빛줄기 속에 비둘기의 모습이 보인다. 성부가 보내신 성령의 빛은 마리아에게 향하고, 마침내는 성자(聖子)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수태고지 전에 마리아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사 7:14).

이를 뒷받침하듯 안젤리코는 가운데 기둥 아치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조 형태로 그려놓았다. 안젤리코의 그림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것을 동정녀 마리아가 처음 알게 된 순간을 그린 것이 아니다. 가브리

엘 천사가 놀란 마리아를 향해 몇 번이고 그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난 뒤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마리아가 처음 두려워하고 당혹해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은 아마도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가 그린 ‘주님의 여종을 보라’ (1849년)가 아닐까 싶다. 로제티의 그림 속에서 순결함을 상징하는 백합꽃을 들고 있는 이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이고, 무섭고 두려움에 떠는 착한 처녀가 마리아이다.

말씀의 육화(肉化)

다시 안젤리코의 그림을 보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자신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실 것을 알게 된 마리아는 처음에는 당황하고 두려워했지만 마침내는 “아멘!”으로 순종한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율법상으로는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가문의 명예와 자존심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수태고지를 받는 마리아는 양손을 가슴에 살짝 포개어 순종하는 모습이다. 천사도 경의를 표시하듯 동일한 제스처이다. 마리아의 망토는 하늘의 영광과 은총을 상징하는 하늘색이다. 원피스는 신성한 사랑을 뜻하는 붉은 색이다. 재미있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부조 바로 밑에 제비가 한 마리 앉아있다. 제비는 ‘인류의 봄’을 상징한다. 아담과 하와 이래 죄악과 불순종에 물든 차갑고 우울한 우리 ‘영혼의 겨울’이 떠나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될 새로운 ‘생명의 봄’을 노래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소명, 召命)에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순종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 떠났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히 11:8).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녀가 응답하여 자신의 열린 마음과 열린 자궁을 하나님 말씀에 내맡겼기에 말씀의 육화(肉化)가 가능했다.”

이 말처럼 마리아는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될지 알지 못한 채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선교

유학생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자!

캠퍼스 선교헌신예배 50여 명 참석

대학 캠퍼스에서 유학생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품은 성도들이 모였다. 지난달 26일 중앙대학교 대학교회에서 ‘캠퍼스 선교헌신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김홍주 목사, 노규석 목사, 이승배 장로 등 온누리교회 선교리더십과 각 대학 교직원과 유학생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 참석자들은 캠퍼스 선교헌신예배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웠다. 온누리교회는 중국어예배, 일본어예배 등 외국어예배공동체가 캠퍼스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의 비전을 나눴다.

이날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는 “유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꿈을 붙들기 바란다”고 응원했고, 신기현 목사(성균관대학교)는 “한두 사람이 유학생들을 섬기면 그들의 가족과 나라가 변화된다”면서 유학생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학생 쿠리발리(아프리카 말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고백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com

김일환 선교사 해외봉사 국무총리상 수상

네팔에서 노인, HIV아동, 지진피해 학생 도와



김일환 선교사(우)와 수상을 축하하는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김일환 선교사(네팔)가 KOICA에서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민간부문)을 수상했다. 김일환 선교사는 2012년부터 네팔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양로원 개척, HIV보균 아동 지원, 지진 피해 학생 섬김 등을 통해 네팔 국민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전하고 있다. 김일환 선교사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부요케 하고자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산M센터, 아랍어예배 준비 중

오늘부터 안산M센터 도서관에서 기도모임

안산M센터가 아랍에서 온 기독교인 난민 2명과 함께 아랍어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아랍어예배의 비전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북아프리카 및 중동 등 24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오늘(2일)부터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 안산M센터 306호 맞은편에서 아랍어예배를 위한 기도모임을 시작한다. 관심 있는 성도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10-3767-9050

오늘 오후 5시 ‘제이흠 입양세미나’

사회선교본부 제이흠사역팀에서 입양세미나를 개최한다. 12월 2일 오후 5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꿈아이홀에서 ‘행복한 입양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이흠 입양세미나 ‘행복한 이야기’는 정태경 장로

(제이흠 담당 장로)의 기도, 한화수 목사(제이흠)의 설교, 입양자 간증, 입양방법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입양을 준비하거나 입양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10-2049-8210

두란노바이블칼리지 12월 세미나

12월 7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한동홀에서 ‘신의 밥상 인간의 밥상’ 세미나가 열린다. 유승준 작가(『신의 밥상, 인간의 밥상』저자)가 강의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2-2078-3275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특강 ‘사모 보이지 않는 목회자’ 세미나는 12월 13일(목)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도은미 사모가 강의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2-2078-3456

57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57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월 7일 오전 11시 Acts29베전빌리지에서 개강한다. 이번 내적치유학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롬 12:2)’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기원 목사(회복사역 본부장), 허철 선교사(예수전도단 DTS강사), 최용준 목사(회복예배, EHS 담당), 이찬우 목사(내적치유학교)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오늘(2일)까지 아이스쿨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문의: 010-2596-1014

사랑부, 서울역 쪽방촌에 성금 전달

30주년 감사음악회 성금 5백 5십만 원

사랑부가 30주년 감사음악회 ‘또 하나의 열매’에 들어온 성금 5백 5십만 원 전액을 서울역 쪽방촌에 전달한다. 사랑부는 “30주년 감사음악회 성금 전액을 사회선교본부 서울역쪽방촌사역팀을 통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준홍 장로(사랑부)는 “사랑부가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3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사랑부가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서 서울역 쪽방촌에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랑부는 앞으로도 문화사역 등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예정이다.

하나원사역팀, ‘도시문화생활체험’ 행사

탈북민 78명, 봉사자 42명 참가

하나원사역팀이 지난달 27일 ‘하나원 도시문화생활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온누리교회 하나원사역팀과 한정협(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이 협력해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탈북민 78명과 봉사자 42명이 참가했다.

하나원 도시문화생활체험 행사에서는 탈북민과 봉사자가 함께 대중교통 이용하기, 주민센터 방문하기, 우체국, 은행 등 편의시설 이용하기

등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황재명 목사(하나원사역팀)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절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절대자의 인도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봉사자들이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야 한다”고 권면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제1회 목회자 사모 캘리그래피展

12월 3~9일 서빙고 선교관 카페

제1회 목회자 사모 캘리그래피 전시회가 내일(3일)부터 9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카페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사모 7명(김수은, 김윤숙, 소명해, 엄경숙, 이경희, 이소영, 한예진)이 만든 말씀 액자, 말씀 머그컵 등 캘리그래피 작품 20여 점이 전시된다.

사모들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12주 동안 한백진 장로(여의도공동

체, 단국대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명예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캘리그래피 작품을 만들었다.

한백진 장로는 “캘리그래피는 글꼴이 아니라 ‘글쫂’”이라며 “7명의 사모들이 주님을 더욱 사모(慕慕)하고 가까이하고 싶은 소망을 담아 글쫂 정원에 꽃을 피웠으니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부채탈출119 참가자 모집

사회선교부에서 부채탈출119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채탈출119는 학자금, 각종 대출, 실직이나 실업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는 부채상담 프로그램이다. 외부 재정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서 부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채탈출119에서는 초기상담, 재정관리와 신용회복을 위한 1대1 멘토링 및 심리상담, 채무조정제도 신청 지원과 사후 재정관리 상담을 지원해준다. 부채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12월 16일까지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이나 팩스(02-6499-4020)로 보내면 된다. 문의: 010-9025-6001

<http://sjm.onnuri.org/loving-u-debt/>

이메일: ej1890@hanmail.net

■ 재소자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

/ 장민음 재소자(영월교도소)

재판이 시작된 지 햇수로 6년,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지 1년 만에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시달려왔던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바로 구속 수감돼 교도소에 도착했다. 비로소 내가 사방이 막혀있는 곳에 있다는 실감이 났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낯선 장소와 사람들, 문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차단된 세계, 위축되고 가난한 마음이 나를 힘겹게 했다.

영월로 이감 명령을 받았다. 그날따라 비가 내렸다. 내 마음속에도 비가 내렸다. 의무교육인 인성교육을 받고 누군가 종교조사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마음속에는 종교가 없었다. 다만 기독교 중학교를 다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가를 가르쳐준 기억이 있을 뿐이었다. 별 생각 없이 기독교라고 말했고 첫 소모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속 밑바닥에 서부터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올라왔다. 눈물이 나왔다. 첫 주일에배를 드리는 날이었다.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교도소 안에다가 교회를 옮겨놓은 것처럼 느껴졌다. 강당에 울려 퍼지는 찬송가가 내 마음을 뜨겁게 했다.

하루하루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었다. 마음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씻어내고 싶었다. 바로 그때 온누리교회 새사람사역팀에서 찾아와 수감자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셨다. 기독교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나의 양육자님은 칠십 중반을 넘기신 고령이었다. 그러나 첫 만남부터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셨다. 매주 만나면 뜨겁게 안아주시고 인사해주셨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며 삶을 진솔하게 털어놓으셨다.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셨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셨다. 모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박혔다. 벽돌을 쌓아 집을 만들어가듯 일대일 제자양육이 나의 신앙의 초석이 되었다.

재판과 구속, 수감 과정에서 오는 불안이 나를 지배했었는데 이제는 그 불안이 사라졌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른다. 온누리교회 새사람사역팀과 양육자들이 베풀어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

■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수료 간증



/ 김혜령 성도(강남B공동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꿈결처럼 지나갔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어떻게 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과연 내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걱정했었다. 그렇게 하가훈이 열리는 Acts29비전빌리지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제일 늦게 도착한 우리 부부는 입구에 마지막으로 놓여있는 명찰을 달고 겸연쩍게 강의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근사한 파티에 초대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매주 주말마다 강의를 듣고 조별 나눔을 하면서 우리 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부부간의 상처와 어려움, 고난을 진솔하게 터놓으며 서로에게 조언을 해줬다. 하가훈은 은혜 그 자체였다. 불신자였던 한 형제가 강사님의 강의를 들은 후에 울먹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우리 부부는 가끔씩 다투거나 의견 충돌이 있긴 하지만 결혼 26년 차라서 대부분의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주도형인 나와 신중

형인 남편의 차이를 ‘배우자가 자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쓰면서 알게 됐다. 정리한 내용을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 드러내고 나누기를 부끄러워하는 우리 부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남편과 나의 가계도를 테이프로 붙이고 그 밑에 아이들을 그리면서 우리를 부부로 묶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사랑 그분의 섭리에 감사를 드렸다. 반드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세우 믿음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겠다고 다짐했다.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고 낯설고 어려운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온 시간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가훈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나의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셨다.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쳤던 순간에도 항상 우리 부부와 동행해 주셨음을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박상훈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나에게 결혼해달라고 해줘서 고마워 여보!

■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경험하며



/ 이승근 집사(경기A공동체)

꼭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20여 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열정을 다했다. 사역의 기쁨을 배우고, 정성을 다해 생활했다.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적지 않은 기쁨을 느끼며 살아왔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침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비어있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면에 관심을 갖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강의와 세미나를 듣기 시작했다. 점점 더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방향성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와 시련과 갈등이 있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선택하고 경험하면서 내게 꼭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피터 스카치로 목사님을 통해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하시고, 성경의 방향대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온누리교회는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를 하면서 내면을 돌아보는 교회”라는 말씀을 되새겼다. 이것이 바로 온

누리교회의 큰 물줄기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얼마 전 목상의 집으로 침묵수련회를 다녀왔다. 자연 속에서 속도를 줄이고 고요한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원형으로 복원되는 느낌이 들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배웠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충전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음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 방향성을 찾고, 수정보완해서 개인영성을 새롭게 함으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관점임을 고백하고 싶다. 큐티와 함께 하루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한다. 내가 느끼고 바라보았던 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고대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 27:17).

■ 가스펠 프로젝트 참가 간증



/ 권혜란 성도(부천 온누리교회)

사랑하는 딸들과 함께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3기 수료를 코앞에 두고 있다. 나는 딸들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나는 유년부 교사로 헌신하고 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말씀으로 훈육하고 있지만 막상 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작년에 부천 온누리교회 ‘꿈이 자라는 땅’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정순 목사님은 교사들 위주로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셨다.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듣고, 교재에 제시된 내용과 질문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활동을 한다. 나는 첫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을 나눴다. 창조의 순서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서 아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순서가 매우 심오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예배 시작 전에 재미있는 게임을 한다. 부모와 아이가 한 팀이 되기도 하고, 몸풀기 게임도 하는데 자녀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깊이 있게 소통도 하는 시간이다. 맛있는 간식도 제공되니 많은 자녀들이 가스펠 프로젝트 시간을 즐거워한다.

나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할 수 있었다. 하브루타를 활용한 나눔과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고민을 쉽게 털어놓았다. 서로 아픔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게 됐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참여하기 전에는 말씀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교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잘 정리된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아이들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아이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줬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장로칼럼

교회 회복의 열쇠, 공동체



우승구 장로
(강서공동체)

내가 온누리교회에 온 지도 어느덧 사반 세기를 넘기고 있다. 93년 동작공동체에서 시작된 나의 공동체 생활은 97년부터는 양천, 강서, 김포공동체로 이어졌다. 그 당시 이 3개의 공동체는 나의 공동체였다. 공동체 생활뿐만 아니라 이천만사역, 은사발견세미나, 러빙핸즈, BEE사역, 농어촌선교팀, 아름다운 동행, 두란노 아버지학교 등 다양한 사역을 섬기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 하지만 나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한 원동력은 사역팀이 아닌 공동체였다.

나의 신앙생활은 장로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달라졌다. 2009년 장로로 장립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나를 포함한 2명의 장로가 700명이 넘는 공동체 식구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2명의 장로가 공동체 식구들의 환영, 환송, 경조사, 전도대회, 리더십 훈련회, 1다락방1사역, 아웃리치, 심방, 순회 순모임, 개인적 상담 등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했다.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가 때로는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 또한 총무와 다락방장, 순장, 권사 대표와 사역자들이 함께 공동체 정신을 발휘했기에 가능했다.

나는 40년 동안 다양한 공직경험(3개 부처, 대학교, 교육청, 공기업 등)을 했다. 지금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행정컨설팅업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장로의 직임을 오히려 평생의 본업으로 여기며 생활하고 있다. 모태 불교신자였다가 30대 말 사망의 터널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다. 그 후 나는 주님께 철

저하게 헌신하기 위해 교회생활, 성경교육, 각종 사역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사회와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됐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화평의 때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엡 4:3).

나는 이 말씀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의 지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하는 예수공동체다. 이는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공동체가 그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공동체 생활이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고 순장이나 다락방장, 공동체 사역자가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순 참석률도 저조하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점점 제도화되어가고 형식만 남아 가는 것 같다.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온누리 미래비전연구소’를 만들 것을 권하고 싶다. 이를 통해 온누리교회가 미래세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과 전략을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빅 데이터와 작업, 컨설팅, 코칭 등을 통해 공동체와 사역들, 목회자들을 백업해주는 전문화된 역할을 해야 한다. 강서공동체 대표 장로 6년째를 맞이하며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를 내어본다.

권사칼럼

무릎으로 열방을 품는 선교사



이정예 권사
(양재 무릎선교기도 학교)

2006년 양재 온누리교회 무릎선교기도 학교가 처음 시작됐다. 6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해서 선교사님과 열방을 위해 기도했다. 지금은 139명의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나는 무릎선교기도학교 창설 초기 7년 동안 총무로 헌신했다. 총무로 섬기는 동안에는 사역과 행사 때문에 매우 분주한 생활을 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다.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열정과 헌신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 총무로 섬긴 7년의 시간이 나에게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작년부터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팀장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팀장으로 섬기면서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다. 총무로 섬길 때보다 하는 일은 많이 줄었지만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지체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한국에 찾아오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의 슬로건은 ‘골방에서 무릎으로 열방을 품는 선교사가 되자’이다. 2000선교에서 주는 각 사역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각 사역지를 20권씩으로 나눠 각 권역 당 조장을 2-3명씩 세웠다. 그렇게 140여 명이 20조로

나뉘어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 한 학기에 선교사님 10~12명을 초빙해서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는다.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지체들은 선교사님들로부터 사역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선교사님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험도 했다.

한 선교사님께서 현지에서 급하게 자동차를 구하고 계셨다. 그 선교사님이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에 방문해서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그 선교사님의 필요를 위해 함께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성도가 후원해서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를 섬기면서 하나님은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지 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셨다. 특히 믿지 않는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장 큰 은혜였다. 처음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를 섬길 때에는 시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 그게 나에게 가장 큰 기도제목이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과 열방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매우 버겁고 힘들었다. 하지만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시부모님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다 선교지에 갈 수는 없다. 하지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는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할 성도님들을 언제나 환영한다.

신앙에세이



네이라 목사
(스페인어예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나의 21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교회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가톨릭 신자였다. 기독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 특히 요한복음 4장 24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나를 만나시기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두란노서원에서 출판된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출석하던 교회에서 위십 리더로 섬기게 되었다. 더불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자 〈생명의 삶〉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삶 속에서 은혜를 체험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뜨거운 은혜를 받기 시작한 나는 처음부터 온누리교회에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세미나와 교육

하나님과의 관계

에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나는 온누리교회의 수많은 교육 중에서 IMF 당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던 ‘위십세미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때 Bob Fitt라는 찬양사역자가 강사로 왔었다. 그 찬양사역자는 세미나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 나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목사로 섬기겠다고 결단한 이후 출석하던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와 총신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 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목회자로 훈련받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졌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삶 속에 가득했다. 나는 지금도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임을 강조한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강할 때도, 약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나누고 싶다. 아시아(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생활하는 스페인 사람과 남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소개해주는 것이다. 스페인 사람과 남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톨릭 종교를 전통으로 갖고 있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회나 경험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예배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온누리교회에서도 지난 9월부터 도곡교육관 온유홀에서 스페인어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스페인어예배는 성도들이 예배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런데 예배 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하다. 스페인어예배를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복음 증거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많은 사역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재정이 있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 세상을 위한 비전에 헌신하라고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예 온누리교회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온전히 복음이 증거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 나라가 세상의 헛된 이념에 휩쓸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념보다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한 사람의 공산주의자가 한 마을에 들어가면 공산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그 마을에 있는데 복음화가 안 되는 걸까요? 복음 증거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세상의 이념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선택을 받은 자가 복음 증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세속화 이념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다음세대들과 젊은이들이 다시 한 번 복음을 증거하도록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열심보다 기도가 앞서고, 헌신보다 기도가 깊어져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이후에 하셨던 기도를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17장 이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제목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21절).

둘째, “세상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23-24절).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마 6: 9-10).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또 응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저 민족에 임하게 하소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복음 증거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응답하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복음 증거의 간절한 기도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험은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이 기도보다 앞서서 것입니다. 선교사의 위험도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심이 기도보다 앞설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열심보다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우리 헌신보다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새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온누리교회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에 참여하기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재미있는 표현을 쓰면서 기도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 두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사 62:6-7).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셔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을 괴롭혀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벽의 파수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일깨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각 가정에 복음이 증거 되고,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 되고, 이 땅에 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이 증거 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이 증거 되고, 온갖 매체를 통해 복음이 증거 되는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복음 증거에 참여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일에 헌신하고 기도하십시오. 각자 정해진 시간에 따라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모임에 참여하고, 기도예 열심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일회용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선언!



유미호 센터장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컵 사용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머그잔을 쓰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늘었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규제한 영향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여전하지만 매장에서는 확실히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에서 빚겨나 곳이다. 전시장, 영화관, 경기장,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카페다. 이곳은 마시는 공간과 별개로 매장만 카페로 등록되어 있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 대상이 아니다. 특정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바깥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더위도 물러가고 찬 음료를 마시

는 사람도 적어졌으니 지금이야말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대안을 찾을 적이다.

최근 1인 가구, 택배 문화의 발달로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이 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인보다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다(세계 1위, 연간 98.2kg). 지난 여름 펄펄 끓는 폭염 때 마시고 버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260억 개, 페트병이 27만 개였다. 버려진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은 포장재 쓰레기다.

‘분리 배출하니까 재활용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30% 남짓만 재활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한 자릿수다. 사실 재활용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지만 만능은 아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하는 것보다 남기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재활용하는 것보다 애당초 쓰지 않고 머그컵이나 텀블러로 바꾸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이 일상에 오기까지 자원이

소비될 뿐 아니라 온실가스 등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을 안다면 달라질까? 절반 다를 것 같지 않다. 우리는 이미 플라스틱을 비롯해 넘치는 쓰레기가 미세먼지는 물론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토는 좁고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알고 있다. 알면서도 일회용품을 다수 사용하고 쓰레기통에 버린다. 심하면 다회용품을 수명과 관계없이 일회용으로 쓰고 버린다. 그러다보니 단위면적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세계 2위다.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가 자원 고갈과 온난화의 위기 앞에서 태양과 바람뿐 아니라 버려진 쓰레기를 자원으로 사용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를 얻고 있다. 자원순환 면에서 필수적인 일이지만 그것도 한계는 있다. 플라스틱만 봐도 매년 8.4%나 증가하고 있다. 재활용 비율은 여전히 9%대인데 말이다.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대부분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바다로 흘러가 거대한 쓰레기 섬이 되어서 새

와 물고기들을 고통스럽게 죽여가게 하고 있다. 잘게 부서진 미세플라스틱은 마시는 물은 물론 소금, 물고기 등을 통해 우리 몸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 2050년이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총 중량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서둘러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조금 있다가는 늦을 수 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노력하면 우리 모두가 골고루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생명을 주고, 또 풍성히 누리라”하신 주님을 따르는 교회라면 앞장서서 일회용품 없이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한다. 당장 없애는 게 불편하다면 친환경 종이 빨대나 접시를 써야 한다. 그래야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생명을 건져낼 수 있다. 교회들이여, 일회용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선언을 하자. 일회용 없는 교회를 향해 내딛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걸음이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온누리교회 정관 개정안

- 12/9 공동의회 상정(예정)
- 12/16 찬반투표 실시(예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교회”라고 칭한다.
영어로는 “Onnuri Church”로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본 교회의 주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11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표방 하고, 복음전도와 선교(해외선교, 사회선교)를 통하여 온누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교회의 주권)

- ① 본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 ② 본 교회정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교인들에게 있다.

제2장 교인

제5조 (교인의 자격)

- ① 본 교회가 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성도는 본 교회의 교인이 된다.
- ② 본 교회의 교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자격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제6조 (책임)

본 교회의 교인은 예배와 교육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책임을 진다.

제7조 (권리)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입교, 이하 같다)교인은 본 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교회의 제직회, 공동의회 등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장 심의 및 의결기관

제8조 (공동의회)

- ① 공동의회는 만 18세 이상 등록된 세례교인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당회장, 당회서기 또는 만 18세 이상 등록된 세례교인 1/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당회장이 공동의회의 의장이 되고, 당회장은 의장 대행자를 지명하고 의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서기는 당회서기가 겸임한다.
- ④ 공동의회는 의장이 회의 1주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후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소집하고,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공동의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 1. 교회 주요 정책 및 재산에 관하여 당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 2. 교회 예산안 및 결산안의 의결
- 3. 담임목사 위임
- 4.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출
- 5. 기타 당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9조 (제직회)

- ① 제직회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로 구성한다.

② 제직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당회장, 당회서기 또는 제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의장은 회의 1주일 이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당회장이 제직회의 의장이 되고, 당회장은 의장 대행자를 지명하여 의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직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직회는 당회가 상정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10조 (당회)

- ① 당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 ②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고, 담임목사 유고시 또는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회서기가 당회장을 대행한다.
- ③ 당회는 서기 1인을 두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당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당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기 유고시 당회운영위원 장로 중 최연장자가 서기를 대행한다.
- ④ 당회는 당회장, 당회서기 또는 재직 당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직 당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당회의 사무는 아래와 같다.

- 1. 공동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사전 심의
- 2. 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3. 담임목사 청빙 시 최종 후보자 결정
- 4. 당회운영위원 중 장로 위원의 선출과 해임
- 5.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출
- 6. 교인의 치리에 관한 사항
- 7. 기타 당회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11조 (당회운영위원회)

- ① 당회운영위원회는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에서 선출한 15인 이내의 장로 운영위원 및 당회장이 지명하는 부목사 2인으로 구성하고, 당회장은 당회운영위원회의의장이 된다.
- ② 당회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외 당회장, 당회서기 또는 당회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③ 당회운영위원회의의 사무는 아래와 같다.

- 1. 당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의 사전 심의
- 2. 교회의 전반적인 사무에 관한 심의·의결
- 3. 당회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
- 4.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명예장로, 명예권사 임직 후보자 추천
- 5. 기타 당회가 위임한 사항
- ④ 당회운영위원 중 장로 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당회분과위원회)

- ① 당회운영위원회는 본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명칭, 역할, 구성방법은 당회운영위원회가 정한다.
- ② 당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장이 추천하여 당회운영위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③ 당회분과위원회의는 당회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의·실행하고, 그 결과를 당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

제4장 직분

제13조 (직분의 종류)

본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를 둔다.

제14조 (목사)

- ① 목사(전임 전도사 포함, 이하 같다)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등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 ② 담임목사는 당회장으로서 본 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교회를 대표한다.
- ③ 담임목사는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목사 중에서 수석부목사와 담임목사를 임명하여 국내 캠퍼스교회와 해외 비전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 목사의 임기, 정년, 청빙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장로)

- ①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교회가 위임한 사역 및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담당하며,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 ② 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된 만 40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서 노회 및 교회가 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공동의회 출석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③ 당회운영위원회는 교인 중에서 복음전도와 선교,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명예장로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 ④ 은퇴한 장로와 명예장로 및 협동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연권회원이 된다.
- ⑤ 장로의 종류, 호칭,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권사)

- ①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하거나 환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담당한다.
- ② 권사는 본 교회에 등록된 만 50세 이상의 여성 세례교인으로서 교회가 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공동의회 출석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③ 당회운영위원회는 여성 교인 중에서 복음전도와 선교,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명예권사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안수집사)

- ①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 ② 안수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된 만 35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교회가 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공동의회 출석교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18조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임직 등)

- ① 본 교회의 장로(명예장로, 협동장로 포함), 권사(명예권사 포함), 안수집사의 자격, 선발절차와 임직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 ②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정년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이고, 정년에 이르기 전에 건강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당회의 승인을 받아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9조 (전도사)

- ①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 ② 전도사의 임기,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조직

제20조 (캠퍼스교회)

- ① 본 교회는 국내에 캠퍼스교회를 두고, 캠퍼스교회는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 목회와 사역을 담당한다.

② 캠퍼스교회에 담당목사를 둔다.

③ 캠퍼스교회 목사(전도사 포함, 이하 같다)의 인사와 재정, 장로·권사·안수집사의 임직은 본 교회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④ 캠퍼스교회에 캠퍼스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캠퍼스교회 운영위원회는 당회 또는 당회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⑤ 캠퍼스교회의 설치와 폐지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고, 캠퍼스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당회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비전교회)

① 본 교회는 해외에 비전교회를 두고, 비전교회는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 목회와 사역을 담당한다.

② 비전교회에 담당목사를 둔다.

③ 비전교회는 교인총회를 두고, 비전교회 교인은 그 회원이 된다.

④ 비전교회 목사의 인사와 장로 임직은 본 교회가 통합하여 관리하고, 재정과 권사·안수집사 임직은 독자적으로 관리한다.

⑤ 비전교회의 설치와 폐지, 분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⑥ 비전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당회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책임목회제)

① 제20조 및 제21조의 교회는 본 교회의 부목사 또는 해당 교회에서 임용한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독립하여 운영하되, 본 교회와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책임목회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책임목회제를 시행할 교회와 그 운영방법은 당회가 정한다.

제23조 (Acts29 미션공동체: AMA)

① 본 교회는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교회, 그 외 본 교회와 목적과 비전을 같이 하는 다른 교회와 연합하여 AMA(Acts29 Mission Alliance)를 조직하고, 그 산하에 각 지역별로 OMA(Onnuri Mission Alliance)를 둘 수 있다.

② AMA에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가 담당하며, AMA의 조직, 구성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③ 책임목회제를 시행하는 비전교회는 원칙적으로 AMA(또는 OMA, 이하 같다) 소속으로 하고, 당회결의에 의하여 특정교회를 AMA에 소속하게 하거나 AMA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본 교회는 AMA 소속 교회와 상호교류 및 연대를 통해 공동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는데 힘쓰고, 이를 위해 AMA 또는 그 소속교회에게 적절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협력관계)

제20조 내지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교회나 기도처 등이 본 교회와 목적과 비전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본 교회는 당회결의로써 그 교회 등과 사이에 일정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제25조 (공동체)

① 본 교회(캠퍼스교회 포함, 이하 같다)는 공동체를 둘 수 있고, 공동체에는 다락방과 순을 둘 수 있다.

② 공동체에 담당목사를 둔다.

③ 공동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공동체 운영위원회는 당회 또는 당회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 공동체의 구성, 분리,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고, 공동체 운영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 방법 등은 당회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사역본부)

① 본 교회의 사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회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역본부(사역부서 포함,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② 사역본부에 본부장 또는 책임자를 둔다.

③ 사역본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사역본부 운영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방법 등은 당회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법인 및 기관·단체

제27조 (법인·기관·단체)

① 다음은 본 교회 산하에 있거나 본 교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 기관, 단체들(이하 “유관기관”이라고 칭한다)이다.

1.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2.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3. CGNTV
4. 두란노해외선교회
5. 사단법인 더멋진세상

② 본 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유관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그 운영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본 교회는 필요한 경우 당회의 승인을 받아 유관기관을 추가로 설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28조 (정관 또는 운영규정의 제정)

제27조의 유관기관은 정관 또는 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주요사항의 승인 및 인준)

① 제27조의 유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회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의 승인 또는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의 임명 또는 해임
2. 이사, 위원 및 감사 등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3. 부동산의 취득, 처분, 담보제공 등 소유재산의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4. 당회운영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가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유관기관의 대표자는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및 감사

제30조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

①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교회의 재정운용은 수입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그 해의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되어 편성한다.

③ 본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일반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지출에 관하여는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예산·결산)

① 본 교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당회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해마다 직전 연도 12월 중에 공동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집행예산의 결산은 이듬해 2월 내에 당회와 제직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제32조 (재정위원회)

① 본 교회는 재정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는 본 교회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업무를 관장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재정위원장은 당회장이 추천하고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정위원은 당회장, 재정위원장 또는 당회운영위원이 추천하고 당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재정위원회는 매년 다음해 예산안을 심의·편성하여 당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운영위원회 및 당회에 직전 연도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 재정위원회 산하에 예산편성 및 결산을 위하여 예결위원회를 둔다.

⑦ 재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 (감사 및 감사위원회)

① 본 교회는 교회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정기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특별감사는 당회장 또는 당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실시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당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 또는 당회운영위원이 추천하고 당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당회운영위원회 및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은 감사를 위하여 관계자들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위원으로부터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재산의 취득과 관리)

① 교회가 취득한 재산은 교회의 소유로 하되, 교회 재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명의로 재산을 취득, 보유할 수 있다.

② 본 교회 재산의 취득, 사용, 수익, 처분 등의 방법과 절차는 당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재산의 관리는 재정위원회가 주관하되, 온누리선교재단 또는 재정전담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 (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교회의 각종 회의는 구성원 과반 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구성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8장 기타

제36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당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제직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당회는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8조 (총회 헌법과의 관계)

권징 및 그 외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 . .)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공동의회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교회 규정의 효력)

이 정관의 효력 발생 당시 본 교회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제반 규정과 법인 및 기관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은 이 정관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존 교회조직 및 위원회)

이 정관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본 교회의 기존 조직, 위원회(당회 운영위원회, 당회 분과위원회 포함), 사역본부 등은 이 정관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 정관의 효력)

이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본 교회의 종전 정관은 효력을 상실한다.

(끝)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6

온누리 창조과학의 밤

일시: 12월 8일 오후 6시

내용: 창조신앙스쿨, 탐사 수료생 및 각 캠퍼스 창조과학선교팀원분들과 송년
모임

장소: 경찬홀(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5층)

문의: 각 캠퍼스 창조과학선교팀

010-4659-6170

온누리임양가족(제이홀) 임양세미나

일시: 12월 2일(주일)

시간: 오후 5시~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꿈이이를

주제: ‘그리스도인의 임양이란?’

대상: 임양을 준비 또는 관심 있는 분

문의: 김병찬 총무(010-3836-2717)

샘물 기독교학교 교직원 모집

샘물중등학교: 영어, 수학, 과학, 음악,

총무(또는 기획)

은혜샘물유초등학교: 담임, 체육

다샘물학교: 회계

마감: 12월 18일 오후 5시까지,

www.smca.or.kr 참조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이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칼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중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 받음

양재 살림기도회 일정 안내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다양한 분야의 명사 특강을 통해
크리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매주 월, 화 오전 8시 방송



• 12월 3일 (월)

<부부 대화, 공감의 기술>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공감대화법

이희범 목사 (지구촌 가정훈련원)

• 12월 4일 (화)

<교회언니의 신앙 사춘기 대처법>



신앙생활에도 사춘기가 찾아온다면?
신앙의 사춘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

김도진 대표 (해피문데이)

방청문의 02-3275-9386